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2년 12월 20일(화) 총 10매	
담당 부서	건축과	담당자	• 건축안전센터팀장 이상국 ☎440-4761 • 담당자 이정영 ☎440-4762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건축의 미래담은 ‘2026 인천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 ‘도시 균형을 되찾는 인천건축’ 비전으로 미래상과 기본방향 담아 -
- 인천시 고유의 가치를 지속하고 새로운 건축·도시 패러다임을 반영한 비전 제시 -

인천시가 ‘도시 균형을 되찾는 인천건축’을 미래 비전으로하는 건축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은 19일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지역의 도시문제를 ‘건축을 통해’ 해소하고, 시민 일상 생활공간인 ‘건축물과 공간환경’이 좋은 디자인과 우수한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이다.

인천시 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법정 의무 계획이며, 미래 건축 정책을 방향을 담은 5개년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2월에 용역을 착수해 약 1,400명의 시민 및 전문가

인식조사와 군·구 현장 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전담 팀 3개 분과 회의와 시민공청회, 시 의회 의견청취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건축기본계획에서는 원도심과 신도시의 인프라, 환경변화와 첨단기술, 역사자원과 미래문화가 균형을 이루는 도시공간·건축을 창출해 시민의 삶을 표용하는 ‘도시 균형을 되찾는 인천건축’이라는 비전으로 이를 위한 3대 목표와 10대 전략을 설정했다.

3대 목표는 ▲ ‘생활공간 단위 공공건축 혁신과 건축경관 관리로 지역활력 창출’ ▲ ‘건축성능 향상을 통해 미래로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인천’ ▲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건축문화, 소통과 기회가 보장되는 건축산업’이다.

10대 전략으로는 △인구변화에 대응한 ‘공공건축 질 향상과 계층을 위한 건축·공간’ △커뮤니티 맞춤형 ‘빈집·유허공간 및 공간환경, 조성·관리’ △지역균형을 찾는 ‘지역 특화 건축경관 창출과 건축경관 향상 방안’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탄소제로 녹색공간 조성’ △첨단기술과 건축정보의 스마트한 활용을 통한 ‘스마트 건축공간 마련’ △소규모 건축물부터 재난 대응하기 위한 ‘건축물 안전성 확보’ △건축자산의 보존·활용으로 ‘근대건축물과 공존하는 인천’ △건축문화제 및 지역축제 활성화를 통한 ‘인천건축문화 확대’ △전문가 및 시민건축교육 확대로 ‘남녀노소 건축평생교육’ △지역 소규모 건축산업 육성 및 활성화로 ‘모두가 체감하는 건축, 새로운 변화’ 등이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범사업 제안 및 시, 군·구의 건축·도시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방향성 제시하고자 했다”며 “인천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건축, 새로운 변화 창출의 전략으로 정책목표별 실천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요약

2022. 12.

□ 제안사유

- 인천광역시 물리적 환경과 사회·경제·환경·문화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도시의 비전 및 지역 건축정책 구상
 - 인천광역시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범사업 제안 및 시, 군·구의 건축·도시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방향성 제시

□ 주요 과업 추진사항

- 착수보고회(2021년 3월 22일)
- 군·구 현장조사 및 실무자 인터뷰(2021년 4월 ~7월, 인천시 전역)
- 인천광역시 지역 주민·전문가 인식조사(2021년 6월 2~28일, 인천시 전역)
 - ※ 일반인 1,200명, 전문가 171명 대상으로 진행
- 실무진 보고회 및 총괄건축가 협의회 개최(2021년 5~8월 월1회, 총 3회)
-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전문가 워크숍 개최 (2021년 09월 24일)
 - ※ 1차 TF 총괄회의와 1차 TF 분과회의를 통합하여 진행
- 2차, 3차 TF 분과회의 (2021년 9월 말 ~ 12월, 각 분과별 진행, 총 6회)
 - ※ 건축디자인 분과(1차 - 9월 24일, 2차 - 10월 28일, 3차 - 12월 8일),
스마트·녹색건축 (1차 - 9월 24일, 2차 - 10월 13일, 3차 - 12월 6일),
건축문화·교육·산업 진흥 (1차 - 9월 24일, 2차 - 10월 18일, 3차 - 12월 10일)
- 인천건축사회 의견수렴 (2022년 2월 11일)
- 건축·도시 관련 기본계획 합동 간담회 (2022년 03월 08일)
- 시, 군·구 및 공공건축가 워크숍 개최 (2022년 3월 18일, 인천하버파크호텔)

- 관계부서 실·과장 보고회 (2022년 4월 19일)
- 군·구 관계부서 보고회 (2022년 5월 04일)
- 시민공청회 (2022년 5월 17일, 인천하버파크호텔)
- 의회의견청취 (2022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의회)
- 건축위원회심의 (2022년 10월 11일,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 계획도출 과정

- 지역 건축 현안을 고려한 세부 건축정책 방향 및 실천과제 도출
 - (건축분야 현안 이슈) 인천 인구사회 여건변화 및 권역별 도시문제를 진단하고, 건축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건축정책 아젠다 및 현안이슈 발굴
 - (건축정책 분야 세부 이슈) 건축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9개 건축정책 분야별 현안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실천과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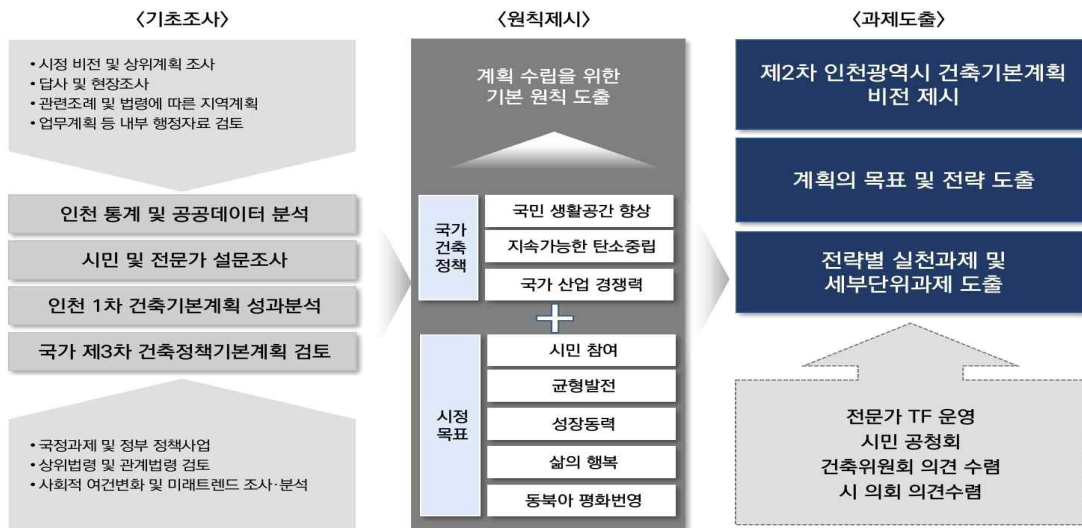
<건축분야 현안과 이슈>

○ 실천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운영

- 실천과제의 내용을 내실화하기 위해 4개월 동안 총괄 및 공공건축가를 비롯한 지역 학계 교수,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TF 운영

○ 비전 및 실천과제 도출

- 계획 수립을 위해 현황조사 및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민선7기 시정 운영 방향과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토대로 계획 비전 도출



<인천 건축기본계획 비전 도출 과정>

— Vision —

“도시 균형을 되찾는 인천건축”



<건축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도출>

□ 주요 내용 (3대 목표, 10대 전략)

[비전] “도시 균형을 되찾는 인천건축”

◎ 원도심과 신도시의 인프라, 환경변화와 첨단기술, 역사자원과 미래문화가
균형을 이루는 도시공간·건축 창출

<목표 1> 생활공간 단위 공공건축 혁신과 건축경관 관리로 지역 활력 창출

☞ (원도심, 신도시의 인프라 균형) 공공건축의 공급, 소규모 건축성능, 지역경관의 균형 창출



○ 전략 1 인구변화에 대응한 “공공건축 질 향상과 모든 계층을 위한 건축·공간”

- (배경) 저출산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의 인구변화로 인한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제도 확대, 취약계층부터 범죄예방 환경 개선
- (주요실천과제) 공공건축 및 총괄·공공건축가 중장기 운영방안, N분 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건축 공간조성, 범죄취약 건축·공간 개선, 주거취약계층 생활 환경 개선

○ 전략 2 커뮤니티 맞춤형 “빈집·유휴공간 및 공간환경 및 소규모건축 품질개선”

- (배경) 소규모 건축물의 질적 향상 필요, 노후건축물, 노후 인프라 밀집, 빈집증가 및 유휴공간 증가로 지역 슬럼화
- (주요실천과제) 소규모 건축물 정비·리모델링 활성화 및 경관향상 방안, 시 단위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 유휴공간 및 폐교 활용 계획

○ 전략 3. 지역 균형을 찾는 “지역 특화 건축경관 창출과 건축경관 향상 방안”

- (배경) 원도심과 신도시의 생활환경 격차 심화로 인구 유출 가속화, 인천숲길 (인천대로), 해양친수공간 조성 등의 대규모 원도심 주변 개발계획
- (주요실천과제) 특별건축을 통한 지역경관 향상, 건축경관 재생형 도시재생사업 확대, 해양친수 조성 주변 건축물 관리, 지역주민 참여 공공공간 특화 경관, 공공건축 선도로 생활권 커뮤니티 회복을 사업

〈목표 2〉 건축성능 향상을 통해 미래로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인천

☞ (환경변화와 첨단기술 균형) 첨단건축물과 노후건축물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건축물 균형 창출



○ 전략 4.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탄소제로 녹색공간 조성”

- (배경) 국가 탄소중립선언과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필요, 공공에서 민간까지 그린 리모델링 사업 확대 요구
- (주요실천과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흡수원 함께 고려한 탄소중립 정책기반 구축, 인천형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추진, 녹지공간 확대 및 대기오염 제로 단지 개발

○ 전략 5. 첨단기술과 건축정보의 스마트한 활용을 통한 “스마트 건축·공간 마련”

- (배경)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기술 발전 가속화,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 건축 산업에서 첨단기술 발달과 신소재 기술 발전으로 설계 및 시공과정 혁신

- (주요실천과제) 인천 스마트건축 확산 및 기반 마련, 건축물 데이터 품질개선, 건축물 및 공간 유지·관리 빅데이터 구축, 건축물 안전지도 구축

○ 전략 6. 소규모 건축물부터 재난·재해 대응하기 위한 “건축물 안전성 확보”

- (배경) 지역 건축물 사고에 따른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정책 추진,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확장, 코로나19, 미세먼지 등 새로운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건축물 관리 필요
- (주요실천과제) 지역 건축안전센터 조직 활성화 및 건축 설계·해체 단계의 안전 체계 강화, 감염병 확산 방지에 따른 공공건축 수급관리, 건축물 안전점검 컨설팅 강화

<목표 3>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건축문화, 소통과 기회가 보장되는 건축산업

☞ (역사자원과 미래문화 균형) 건축자산의 보존과 활용, 시민부터 전문가까지 건축교육, 건축 산업과 신진건축사까지 균형 창출



○ 전략 7. 건축자산의 보존·활용으로 “근대건축물과 공존하는 인천” 구축

- (배경) 건축자산의 지속적인 멸실 가속화, 건축자산에 관한 시민 인식 부재, 건축 진흥구역 지정에 따른 후속 과제 필요, 지정된 건축자산 활용사업
- (주요실천과제) 근대건축물 매입 및 재활용 사업, 건축자산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건축자산 보존·활용을 위한 지원센터와 전문가조직 및 위원회 신설

○ 전략 8. 건축문화제 및 지역건축 활성화를 통한 “인천건축문화 확대”

- (배경) 각 지역건축 특화를 통한 지역정체성 강화 필요, 인천건축문화제의 활성화를 통해 건축문화에 대한 홍보 필요
- (주요실천과제) 건축문화 콘텐츠 발굴 및 장소마케팅, 인천건축문화제 개선을 통한 활성화, 건축문화재단 신설, 교류도시 활용 건축문화교류 촉진

○ 전략 9. 전문가 및 시민 건축 교육 확대로 “남녀노소 건축 평생교육”

- (배경) 일반 시민부터 건축 종사자까지 건축을 배울 수 있는 기회 필요, 건축 산업 변화에 따른 전문 영역별 교육 프로그램 필요
- (주요실천과제) 연령대별 건축문화 프로그램 확산, 지역전문가들을 위한 역량 프로그램 발굴과 교육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전략 10. 지역 소규모 건축산업 육성 및 활성화로 “모두 체감하는 건축, 새로운 변화”

- (배경) 지역 건축산업 성장을 위해 신진건축사와 소규모 시공업체 육성 필요, 기존 건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 (주요실천과제) 건축설계 표준품셈 적용 및 불공정계약 모니터링, 지역건축 정체성 강화를 위한 디자인 TF 운영, 민간 설계 공모 활성화, 건축설계 공모 지역 사업체 인센티브제 도입